



삼성화재 콜센터 개소식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금호생명빌딩



<12일>

▲ 진도군 갈매기섬 위령제 = 오전 10시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 갈매기섬. 한국전쟁 당시 진도 지역에서 경찰에게 학살된 주민 300여명에 대한 위령제.

▲ 국제 결혼가정 희망 사랑 만남의 날 = 오전 10시30분 강진군 문화회관. 강진·장흥·보성군 국제 결혼 가정 150여명 참석 예정. 청자 박물관 견학·청자 빛기 체험 행사 등.

▲ 목포 작은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 = 오후 2시 목포시 산정동 산정새마을금고 2층 어린이 도서관. 도서관 85평에 유아·어린이·성인용 도서 2천 900권 비치. 향후 5곳에 추가 조성할 예정.

▲ 삼성화재 콜센터 개소식 =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금호생명빌딩.

▲ 광주·전남지역 혁신협의회 권역별 세미나(서남권) = 오후 3시 목포시청. 이건철 광주·전남 지역 혁신협의회 사무국장이 '대중국 교류 관광거점 육성과 과제', 임경수 한국퍼머컬처연구소 소장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혁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

▲ 13일
▲ 제 48회 산학협동포럼 = 오후 7시 무등파크호텔 4층 다이아몬드룸. 양병무 한국인간개발연구원장이 '리더쉽과 혁신적 성공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

▲ 영산강 시원 가마골 보존과 이용 계획 심포지엄 = 오후 2시 담양군 문화회관 소공연장. 이해섭 향토문화연구회장이 '가마골의 역사·보존 가치', 김희우 호남대 조경학과 교수가 '가마골의 환경보

전 방안', 안종수 호남대 관광학과 교수가 '가마골의 관광자원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

▲ 광주·전남지역 혁신협의회 권역별 세미나(광주대도시권) =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박동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비전과 전략', 손승광 동신대 교수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혁신과제', 김정희 부산 중구 혁신협의회 위원이 '대도시 기초 혁신협의회 운영 사례' 등에 대해 발표.

▲ 유네스코 광주·전남 협회 창립 41주년 기념식 = 오후 4시30분 메리어트 예식장 컨벤션홀.
교 종합예술제 = 12일(화) 오후 2시 담양군 문화회관 대공연장.
'희망 한그릇'이라는 주제로, 판소리·고전무용·민

요·설장구 등 공연.

▲ 화요예술무대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회' = 12일(화)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 남도소리 상설무대 = 13일(수)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전인삼의 '춘향기' 공연.

▲ 정율성 국제음악제 = 13일(수) 오후 7시 5·18 기념문화센터. 수원시립교향악단·전주시립합창단·소프나노 민수경·피아노 신민정씨 등 공연.

▲ 2006 담양사랑 하모니 = 13일(수) 오후 7시 담양군 문화회관 대공연장. 놀이쾌 신명 주관으로 모듬부·마당극·B-Boy 댄스·그룹사운드 공연.

▲ 청동회전 = 13일까지 무등 예술관. 청동회 25번재 회원전. 유화, 한국화 작품전.

▲ 광주·전남 문인회협회 회전 = 14일부터 20일까지 마트로 갤러리. 문인회 116점 전시.

▲ 아트그룹 엘레멘(L.M.N) 창립기념전 = 14일부터 20일까지 대동갤러리. 조선대 출신 젊은 작가들의 작품전.

▲ 제 9회 영·호남 미술교류전 = 13일까지 목포 문화예술회관.

I love MY student



김 금 자

<신안 지도초등학교
동천분교장 교사>

지난 2004년 3월 신안군 반월도의 안좌초등학교 반월분교장으로 부임해 너희들과 첫 만남을 한 지가 몇 그제 같은데 헤어진지 벌써 1년이 되어가는구나.

교직생활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내딛어 보는 도서벽지라서 더욱 잊을 수 없는 너희들이기에 원영이와 원종이, 어리와 소리, 그리고 명석이라는 전교생 5명의 이름은 내 평생 기슭속에 묻어 두어야 할 이름들이 아니었나 싶다.

애들아! 너희들에게 선생님은 먼저 음악을 통하여 감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도록 밝은 가사에 고운 선율로 이루어진 동요를 부르게 했고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리코더와 멜로디언, 그리고 목소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면서 참 행복했었지?

어떻게 보면 노래와 그림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비워도 비워도 넘쳐나는 그리움

란다.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까(?)를 너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었다. 그 욕심에 첫해 본교인 안좌초등학교에 30명의 기악합주부를 창단해 안좌읍에서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고 다음해 전통문화 흥겨움과 멋진 가락을 배우려고 사물놀이부를 만들기도 했지. 그 결과 지역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했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단다. 연습을 하기 위해 너희들을 본교로 데리고 다니면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벼락을 맞을 때도 있었지만 어려움을 참아내며 우리의 꿈을 펼쳐 나갔었지.

애들아! 기억나니? 틈틈이 그렸던 그림 그리기와 아침마다 읽었던 책 때문인지 전국 맹발 상상화 및 캐릭터 그리기 대회와 전남도 교육청이 주최한 발명 이야기 글 공모전에서 6명이 상을 받았잖아. 특히 전국 농어촌 문제대전에서는 5학년 원영이가 입상하여 푸짐한 상금과 함께 상장을 받던 날은 반월도에서 축제가 벌여지기도 했잖아.

제주도 여행은 정말 좋았지? 우리의 소망을 인터넷으로 올렸더니 도지사님의 조정을 받았고 2박3일간 제주도 곳곳을 구경 했잖아. 그 때 일은 '낙도 어린이의 꿈같은 제주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각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돼 전국민들이 봤지.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학교는 독립된 고립기관이 아니고 사회적 맥락에 맞추어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서 지역사회 선도자

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선생님의 교육철학이란다.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 식구들과 함께 직접 반월도에 가서 집집마다 무료로 영성사진을 찍고 문을 서울 하이마트와 광주 삼성공장, 광주 LG 회사에 사연을 담은 편지를 보내 대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TV, DVD, 진공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마련해 마을 노인정에 들어놓은 것도 이 때문이란다.

또 20세기 교실에서 21세기를 클릭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편지로 보냈을 때는 서울 정보회사에서 컴퓨터 5대, 목포 KT 지사에서 최신형 컴퓨터 1대와 각 가정에까지 인터넷이 설치됐고 그 이후 5학년 아이들 모두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컴퓨터 연습을 해 워드프로세서 3급 자격증을 따기도 했지.

태극기를 보유하는 가정이 적어 국기 선양회로부터 국가지원요청을 하여 반월도 전 가정에 태극기와 국기봉, 국기 보관함까지 지원을 받아 국경일에는 태극기의 물결로 섬 전체를 수놓아 나라 사랑의 실천의지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어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홀.TODO 했는지 모른다. 너희들과 함께했던 이 모든 일로 세상은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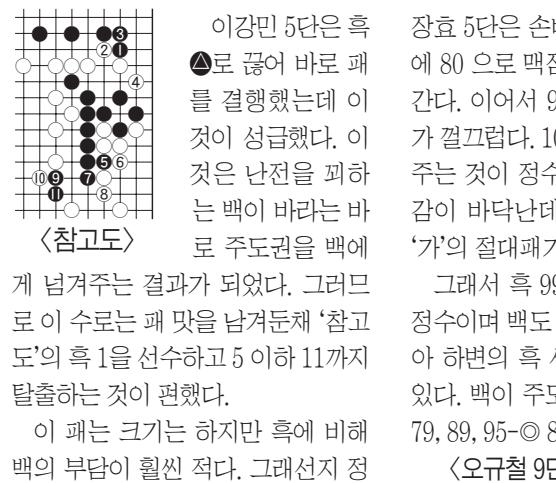
애들아! 참 기쁨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있다고 하지? 선생님은 너희들을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희들을 위해 곳곳에서 사랑의 씨앗을 심어준 분들께 감사를 하고 싶다.

너희들도 먼 훗날 누군가의 사과나무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나의 희망인 너희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한 우리가 꿈꾸는 세상도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으리라 믿는다.

성급한 패싸움

6보(76~100)

白 정 장 효 5단
(포스코)
黑 이 강 민 5단
(PCA생명)



생활의 중심 SK telecom

KTF 한국마사회

바둑 소식

이하진 2단 첫승 좌절

이하진 2단이 11일 중국에서 열린 제5회 전광장배 세계여자바둑최강전 제1국에서 중국의 루지아 초단에게 255수 만에 즉 반집 패했다.

혹은 전 이하진은 우연에서 발생한 패싸움에서 반집을 힘겹게 벌여 들었으나 막판 미세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돌을 거두었다.

루 초단은 12일 일본의 5장을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한다.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한·중·일 3국 선수 5명이 연승전 방식으로 대국을 벌인다. 6집 6집 반이 적용되며 각자 제한시간 1시간(초읽기 40초 3회)의 속기전이다. 우승 상금은 7천500만원.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95>

How do you like it?

당신, 그것이 맘에 드는가?

A:I heard you got a new job.

B:Yes, I'm doing accounting for a real estate developer.

A:How do you like it?

B:So far, I'm really enjoying it.

A:자네,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는 말이 들리더니?

B:예, 저는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A:그 일, 맘에 들어?

B:지금까지는, 그 일, 정말 좋습니다.

get a job : 취업하다

a real estate : 부동산

developer : 개발자, 택지 개발(조성)업자

account for~ : ~에 회계 업무를 맡다

so far : 지금까지는

How do you~? : ~은 어떤가?

- How do you make it?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했는가?

오하이오 니혼고 <795>

髪型(かみがた)をかえたんですね

머리 모양을 바꾸셨군요

A:髪型(かみがた)をかえたんですね。

B:ええ,おかげさまで、すっきりしました。

A:女の方は失戀(しつれん)をしたら、髪を切るって言うけど、何かあったんですか?

B:そうじゃありませんよ。でも、嫌(いや)なことは、きれいさっぱり忘(わす)れてしまいたいと言うところかな。

A:머리 모양을 바꾸셨군요。

B:예, 덕분에 시원합니다.

A:여자는 실연하면 머리를 자른다고 하던데, 무슨 일 있었던 겁니까?

B: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싶다는 정도랄까…

髪型(かみがた) : 머리모양

おかげさまで : 덕분에

すっきり : 산뜻한 모양

失戀(しつれん) : 실연

嫌(いや)な : 싫은, 좋지 않은

니하오 쟁구워 <513>

没戏

가망(희망)이 없다

A:这次比賽他能不贏就完事了?

B:你說得對, 他這次贏了就是贏了。

A:我怎麼會贏?

B:你說得對, 他這次贏了就是贏了。

A:這回比賽他沒把握贏的。

B:你說得對, 他這次贏了就是贏了。

A:這回比賽他沒把握贏的。